

## 아시아 문화 용광로...광주 '미래의 문'이 열린다

아시아의 창 문화전당  
개관 한달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음달 4일 문을 연다. '문화인프라 불모지' 광주에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문화전당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개관 한 달을 앞두고 국내외 관객들을 맞이할 문화전당 5개원의 개관 콘텐츠와 운영방식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관련 기사 2·3면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9월4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5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비로소 문을 열게 됐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예술교류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문화전당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정부 책임기관에 따르면 오는 9월4일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새로 지은 4개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에 개관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을 단장하는 공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화전당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동안 준비한 개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각 원별로 작품

2005년 첫 삽 뜬지 10년만에 5개월 막바지 개관 준비 박차 연말까지 공연·전시 줄 이어

설치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관객들을 위해 냉방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시운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창조·제작, 유통을 지향하는 문화전당은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으로 따져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다. 전당 건립에는 6991억원이 들었다. 문화전당은 5개원이 상호 보완·협력 시스템으로 토티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창작해 선보이는 공연장,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각국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어린이 문화체험장이다. 문화창조원은 국내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문화전당측은 개관일(9월4일)과 공식개관 행사일(11월25일)을 포함해 연말까지 개관 축제와 공연·전시물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극장은 개관 축제 작품으로 모두 33편을 무대에 올리며 문화창조원은 아시아를 조망하는 ‘신화와 근대 비켜서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 공연문화축제’를 준비했다. 조성일장이 지연된 민주평화교류원은 오는 11월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과정을 10개의 플랫폼으로 조명한 ‘열흘간의 나비 떴다’를 전시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은 정부 책임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맡게되며 일부 업무를 아시아문화원(8월 출범 예정)에 위탁하는 등 양대 기관 체제로 운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지난달 20일 출범했으며 현재 아시아문화원 설립을 위해 인력선발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일 전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우선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문화전당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은 나도 스타”...신나는 청소년 축제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제4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공연 부문에 참가한 대성여고 ‘히로인’팀이 걸그룹 음악에 맞춰 신나는 춤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7·18·22면 /김진수기자 jeans@

## 사람 잡는 불별더위

물놀이·밭일 폭염 사망자 속출 주말 피서객 물려 고속도로 정체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불별 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께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 A(31)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무안군은 해당 해수욕장의 경우 개인 사유지인 점을 들어 폐장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순천에서는 80대 여성이 밭일을 나갔다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전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 전담팀 운영에 들어갔다. 또 고

온다습한 날씨로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이나 복통, 설사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를 비롯, 구례·곡성·광양·화순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광주와 나주 등은 오는 9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무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을 찾아 도심에서 벗어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말,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는 피서 나들이 차량으로 곳곳에서 지·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지난 1일 광주를 빠져나간 차량이 32만7000대로 집계되는 등 예년 휴가철 평균 교통량(2만3000대)에 비해 훨씬 많은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백희준기자 bhj@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내 선거구 살아남을까?...총선 입지자 대혼란

선거구 획정안·선거제도 개편·의원 정수 등 오리무중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의 지역변동이 예고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로 선거제도 개편 및 의원 정수 증원이 쉽지 않아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정원 300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지역구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입지자들도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는 자치구 시·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광양·구례에서 구례가,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되면서 담양·장성·구례·곡성의 지역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곡성이 고향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과 담양이 고향인 새정치연합의 이계호 의원의 한 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보성이 연합한 화순과 목일 경우, 나주시가 연합 기초자치단체와 선거구가 형성되고 장흥과 목일 경우, 강진·영암이 연합한 기초자치단체와 목일 수밖에 없어 연쇄적인 지역구 변동이 불가피하다. 광주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동구가 북구와 남구 어느 쪽으로 묶이느냐에 따라 총선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동구가 북구와 목일 경우, 동북 갑·을·병 3개의 선거구로 조정되고 남구로 묶이면 동남 갑·을로 나뉘어진다. 현재의 선거구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맞대결 가능성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의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인접 군 지역 인사들과 접촉에 나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정치적 상도가 없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의원정수 증원, 선거구 획정안 어느 하나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출신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지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원 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내년 총선에서 ‘낙하산 공천’이 사라지고 경선을 통해 유권자나 당원들이 후보를 직접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올해 1월 3348명이었던 신규 당원이 6월에 3만9053명, 지난 달 2만113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제의 베스트셀러!  
**박영선** 의원 새 책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 사인회  
• 일시: 8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광주 영풍문고 (종합버스터미널 1층)

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풍령 꿈과 그 현실  
누가 지도자인가

바움의숲